

황의조, 폭로글 작성자 고소...“법적 조치”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를 마친 뒤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 고소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 법적 조치도 검토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불법 유포자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폭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황의조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폭로글 자체도 비공개 전환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펼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수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자료를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를 통한 영상 매매 등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법률대리인은 "영상과 관련한 2차 피해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선수 사생활에 심각하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유포 등 관련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스

최형우 1500타점 기념구, 박물관 전시 최정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념구도 전시



2023시즌 탄생한 KBO 1호 기념구들이 야구박물관에 전시된다. KBO 아카이브센터는 26일 KIA 타이거즈 최형우의 1500타점 기념구와 SSG 랜더스 최정의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념구를 기증받았다.

최형우는 지난 20일 대전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회초 중앙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리며 KBO리그 최초 1500타점이라는 대기록을 쌓아 올렸다.

1500타점은 종전 리그 통산 최다 타점 1위 기록인 이승엽(전 삼성)의 1498타점을 넘어선 기록으로, KBO리그가 출범한 이래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숫자다.

이로써 최형우는 이승엽이 양준혁(전 삼성)의 1389타점을 제친 2016년 8월 24일 이후 약 7년간 군림하던 통산 타점 1위 자리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으로 최형우가 만들어 내는 모든 타점은 KBO리그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 KBO리그 사상 첫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은 최정이 18년간 몸담아 온 홈 구장에서 나왔다. 최정은 지난 1일 문학 삼성전에서 양창섭을 상대로 두 차례 담장을 넘기며 KBO리그 1호 18시즌 연속 10홈런을 기록했다.

테워 시즌은 2005년 문학구장에서 첫 홈런을 신고한 최정은 이듬해인 2006년 이후 매 시즌 꾸준하게 10홈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통산 448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최정은 올 시즌에도 19홈런을 기록하며 역대 3번째 8시즌 연속 20홈런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있다.

기증된 기념구들은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돼 2026년 부산 기장군에서 개관하는 야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뉴스스

영암군 민속씨름단, 백두·금강 2관왕

강릉단오장사대회 금강장사 최정만·백두장사 김민재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최정만 금강장사(왼쪽)와 김민재 백두장사.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20~25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주인공은 '최단오'란 별명으로 불리는 금강급의 최정만 장사와 '괴물'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백두급 김민재 장사이다.

최 장사는 8강부터 결승까지 우승 후보들만 즐줄이 만나며 전 경기 막판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금강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강릉에서만 2연패를 달성한 최 장사는 단오장사 최다 타이틀, 개인통산 18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별명 최단오가 명불허전을 알렸다.

백두급에서는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장사의 독무대였다.

김 장사는 전 경기 단 한판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백두장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4강에서 우승 후보 MG새마을급고 장성우 선수에 이어 결승에서 수원시청 정창조 선수를 꺾었으며, 대학생 신분으로 참가한 지난해 단오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태백급 2위 장영진, 한라급 5위 차민수 등 영암민속씨름단 선수들은 모든 체급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태 감독은 "영암군민들께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민속씨름단은 장사 61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9회로 총 74회 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광양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클럽 운영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광양) 배드민턴 교류전 개최



2023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광양) 배드민턴 교류전

광양시장애인체육회는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2023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광양) 배드민턴 교류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배드민턴 교류전'은 경남, 전북, 순천, 여수, 하동, 광양시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클럽 등 10여 명의 우수클럽이 참가했다.

배드민턴 교류전은 △휠체어 4인조 △스탠딩 혼성 4인조(어울림) △지적 4인조 △지적 초보자 4인조(어울림) 등 4개 종목으로 운영됐으며, 대회 규정은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생활 체육대회 경기 규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류전에서 광양시는 백길

주, 남성민, 신경민, 이문성 선수가 IDD부문에서 우승하는 등 전 종목에서 선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박상훈 체육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어 화합과 소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외 양궁, 게이트볼 종목도 순차적으로 교류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광양)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주 2회씩 운영하고 있다.

/광양조준연 기자

전남 카누, 전국대회 금7·은3·동4 획득



전남 카누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수확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전남체고·목포제일여고가 강원도 화

천에서 열린 '제22회 파도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호 기자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핏[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